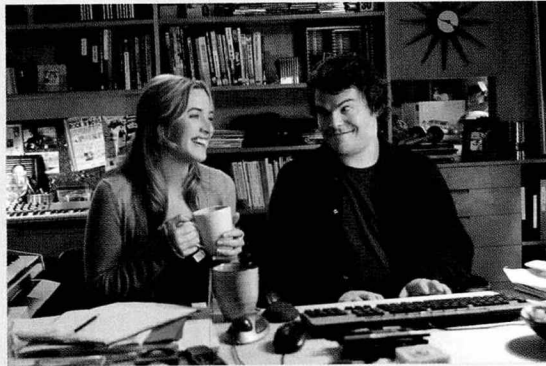


휴가로 상대방의 집을 잠시 2주일만 빌리게 되고, 영국과 미국이 홈 익스체인지지를 한다. 서로 사랑의 상처를 받고 떠나서 두 명의 여인이 서로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맺고 사랑을 완성해가는 이야기이다. 여성이 당당하게 주체적인 사랑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크리스마스기간을 통해서 로맨틱하게 풀어가고 있다.

영국과 미국이지만 시골과 도시로 봐도 된다. 미국의 호화주택, 영국의 전원주택을 서로 바꾸게 된다. 이것이 시골과 도시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그렇다. 거리상 영국과 미국이 먼 것처럼 지금의 현실도 이러한 사람들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심해질



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들도 유머감각이 뛰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회복지사도 유머감각이 뛰어나야지만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아 결혼하기 쉬울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사로 현장에서 일할 때 유머감각이 회의를 진행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주민과 함께 일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할 수 있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조금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대학의 교과과정 안에 유머감각

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이 마련되어도 좋을 것이다. 개그맨을 불러서 특강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아니면 영화 속의 그들이 유머감각을 통해 사랑을 만들어간 것처럼 사회복지사도 유머감각을 통해 주민과 사랑을 키워나가야 한다. 정안되면 혼자서 자녀를 키우던 아빠가 했던 넵킨쇼처럼 영화 속에서 나오는 유머를 그대로 활용해도 된다.

복지관 익스체인지exchange 로맨틱 홀리데이

수목 사회문제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더 이들이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익스체인지가 현대사회 안에서 계속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산다면 세상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이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영국의 한 여인은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의 결혼소식을 듣고 휴가를 낸다. 이후에도 남자는 결혼은 다른 여자와 하면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하거나 미국까지 찾아온다. 결국 낯선 미국에서 동네 어른신이 당당하게 행사에 설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서 집주인의 영화음악 제작가 동료와 사랑하게 된다.

여기에 나오는 사랑을 하게 된 두 남자와 동네 어른신 모두 유머감각이 뛰어나다. 최근 영국의 여성들에게 어떤 남자를 선호하는지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유머감각이 1순위

바람이 불면 날아갈까봐 영화음악제작자는 걱정하고 자신들을 송장이라 부르는 동네어르신들처럼 말이다.

그녀를 사랑하게 된 영화음악 제작자는 그녀와 사랑하기 위해 음악을 들려준다. 그녀를 위한 노래를 만들어서 분위기를 좋을 때 들려주는 것이다. 안 넘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현장에서 일을 할 때 물론 사회복지계 또는 기관에서 요구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자신이 잘 하는 것, 즐거운 것을 자신의 업무에 적용해 일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자신도 신나고 즐겁고 소진되지 않는다. 물론 사회복지사 개인의 욕구가 아닌 지역욕구나 주민욕구에 따라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지역욕구나 주민욕구가 자신이 잘하고 즐거운 것이라면 더 신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주민과 지역사회 욕구에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동네 어른신은 그녀에게 영화를 추천해 준다. 추천한 영화 속 여자 주인공들은 모두 당당하게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찾아가는 내용이다. 영화를 통해서 그녀의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위한 어른신의 조언이었던 것이다. 나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다. 주민들에게 영화를 선택해주고 그 영화를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면 한다. 그러한 영화 치료(?)를 하는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 지금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영화를 통해 인생의 행복과 삶의 희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네에서 작은 영화상영회부터 시작할 수 있다. 외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영화를 대여할 수도 있다. 소외된 자들이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영화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액세스 작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미국의 한 여인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잔 것에 화가 나서 남자를 집에서 내쫓고 휴가를 낸다. 예고편 제작자인 만큼 모든 생각들은 영화예고편과 같다. 다시 안 만날 사이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오빠와 잠자리를 하게 되고 아이가 있다는 것을 속였지만 결국에는 사랑하게 된다.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와 사랑의 감정이 계속 왔다갔다했음에도 오랜만에 흘린 그녀의 눈물로 인해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게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새해를 함께 지내게 된다.

복지관 직원들도 가끔은 일하면서 상처를 받는다. 이때 다른 복지관과 익스체인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외이면 더 좋다. 사회복지선진국이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이다. 자신이 일하면서 소진되거나 그냥 형식적인 일로 받아들였던 것들을 다른 기관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으면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상대기관과 비교할 수 있으며 자신의 기관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다. 어떤 기관은 해외의 복지관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자주 왕래를 하는 곳도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기관들이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한다.

기관별 익스체인지보다 지금 현장에서는 법인 내 또는 기관 내부적으로 익스체인지가 이루어진다. 기관마다 한 팀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고 팀들을 돌아다니게 된다. 법인이 좀 큰 경우에는 한 법인 아래 다른 기관으로 옮겨 다니기도 한다. 경력이 쌓이게 되면 실천가보다 행정가 역할이 요구되어지고 부장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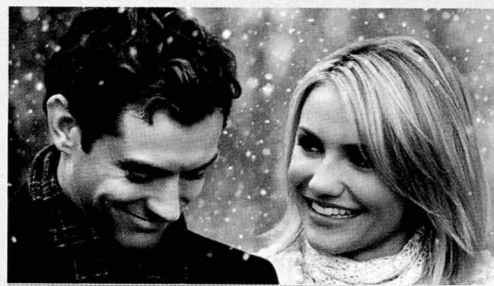
는 관장의 자리에 오르면 사회복지사로서의 실천적 역할을 하기는 역부족이다. 물론 행정가라면 실천적 활동에 대해 모두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 사회복지 중간관리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관 내에 실천가와 행정가가 분리되어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 나 자신도 과장자리에 오르게 될 때 실천적 역할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주민들과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그냥 사회복지사로서 평생을 일하고 싶을 뿐이다. 직위는 갖지 않으면서 호봉만 올려주는 것도 다른 방법이다. 아직까지 사회복지현장에서는 실제 실무자로서 훌륭하게 일했던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부장이나 총괄과장의 역할을 하게 되

면서 실천적 역할이 축소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동안의 경험을 좀 더 살려서 전문적인 사회복지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사회복지계의 손실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영화속 주인공들은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냈다. 그리고 사랑의 완성으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송년의 밤을 지내게 된다. 이런 휴가를 기관에서도 충분히 보내줄 수 있었으면 한다. 대학이나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안식월이나 안식년 제도가 있다. 물론 그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사회복지 기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좀 더 일을 잘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한

경험이 현장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로포절의 지원을 받아도 좋다. 되도록이면 기관장이나 사회복지계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배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네 어르신이 영화관계자들 앞에서 가서 한 말이 생각한다. 영화와 사랑에 빠졌고 영화는 내 평생 연인이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 또한 사회복지와 사랑에 빠졌고 사회복지사는 내 평생 연인이었다고 늙어서 말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었으면 한다. SW



카메론 디아즈·케이트 윈슬렛·주드로·잭 블랙

올겨울 가슴 따뜻한 최고의 러브 스토리
로맨틱 홀리데이
the Holiday



〈사랑할때 버려야할 아까운 것들〉의 낸시 마이애스 감독

권혁철 춘의종합사회복지관

